

축복의 조건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5:3-10] 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10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 은혜의 복음과 축복의 조건

어느 개신교 신학자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교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 개신교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약속받는 잘못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소위 ‘공로의 복음’은 사람이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 받는다고 하는 교리로서,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이 교리를 고집해 왔으며, 불교, 회교, 힌두교와 여타 종교들이 이 선행 공로 구원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공양미 삼백석의 심청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6 세기 초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관행에 맞서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교회의 해석과 전통 대신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성경적 기본 진리를 선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수 개신교 교회들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다른 서신들에서 이 은혜의 구원 교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에 기록된 소위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이 은혜의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그분의 자녀들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데,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성화와 우리의 보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도덕적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소위 ‘성화 [聖化 Sanctification]’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 나서 자라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도덕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받는 졸업장이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다. 졸업장은 일할 직장을 구할 자격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세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영적 변환 과정을 거쳤는가, 얼마나 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까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갈 때에 받을 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공로는 영적 성화를 기본으로 하며, 그 공로는 우리가 영원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12-15]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조나 짚을 세우면, 13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5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한 공로가 심판 때에 불에 의하여 시험받을 것이며, 그 공로가 불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며, 만일 우리의 공로가 주님의 불의 시험에 모두 불타고 없어지는 헛된 것이었다면, 그 공로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되 마치 불 속을 통과하여 받는 것처럼 힘든 구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구원과 영원한 보상에 관하여 시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공로가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영원한 상을 얻으려면 주 예수님의 시험대 앞에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로, 즉 영원의 관점에서 가치있는 그런 공로를 이루어야만 상을 받을 것이며, 크리스찬들은 이 공로에 따라 심판시에 받을 상이 결정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16-18]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18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3. 우리가 받을 보상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에 시험을 앞두고 교과서와 참고서 등을 사용하여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학생이 미리 시험지를 훑쳐보고 이를 카피하여 동료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그 시험지 카피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수월할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와 같이 미리 시험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그러한 시험지 카피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모두 씌어져 있으니 우리는 쉽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시험지 카피와 같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교만과 허위와 자만함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흠리스 사람들이 무료 급식소에 올 때에 가지는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이 그 얼굴과 온 몸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적 재산이나, 정치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습에 이런 거지의 가난한 심령이 없고, 대신에 교만과 자만과, 남을 무시하는 태도나, 억압하는 강자의 교만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십일조를 많이 바쳤고, 자선 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했어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여러분의 공로는 주님의 불의 시험을 당할 때에 모두 타고 없게 될 것입니다.

4 절과 6 절과 10 절의 말씀은, 지금 당하는 불의와, 차별과, 천대와, 재난으로 인하여 가진 것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이 주 예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여 의로운 백성들을 억압하고, 악한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적 기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큰 진노로 그러한 사악한 불의의 세력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계에 펼쳐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의로운 백성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참된 위रो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5 절의 말씀은 온유한 백성, 즉 주님에게 굴복하여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초장에 사는 양과 같은 부서진 성품, 목자를 앙망하는 순화된 양의 성품을 가진 백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수립하실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상속받는, 즉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한을 받게 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15-17]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16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17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7 절의 말씀은, 비록 우리 주위에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사탄을 숭앙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우리는 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파하고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낸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했던 일들, 수 많이 저지른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모두 용서 받고 자비로운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엄한 기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서 남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여도 주님의 불의 심판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8 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다면, 처음 복음 말씀에 “예, 주님,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한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간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 버리고 세상과 사탄과 탐욕에 이끌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잃어 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감히 주 앞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감히 뵈지 못하고 아마도 울타리 언저리에서 자신을 숨기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 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그리하여 한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화평이 있도록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한다면 주님에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이 상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상속 자녀의 상을 바라는 크리스찬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분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게 하는 화평의 전도자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4. 우리의 소망

주님께 굴복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소망 안에 들어온,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받게 될 보상은 우리의 영적 성취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신체적, 정치적, 사회적 공적과는 다른 것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화의 기준에 따라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러한 영적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심판석 앞에 설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쓸모 없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퇴짜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기준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으니, 이 기준들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매일 우리 안에 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과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이 시험 준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아멘.